합격기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전국) 합격〕

“절박감, 반복과 훈련,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고 승 진

- 1983년 7월 生
-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0년(제54회) 행시 일반행정(전국)직렬 합격

Ⅰ. 들어가며

“축하합니다. 1000xxxx님 2010년 5급공채(행정) 최종시험 합격. 행정안전부.” 작년 11월 말 최종합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보다 2009년에 2차 시험을 더 잘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2009년에는 불합격하였고, 2010년에 합격을 하여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9년에는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자만심이 제 마음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공부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합격을 위해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반복과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고 뜻하지 않은 순간에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합격하신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고 그것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저러한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공부해 온 방법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시기별, 과목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하였으며, 스터디나 동기부여, 휴식 등은 어떻게 하였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시기별 공부 방법

1.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

사람에게 있어서 동기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스스로 게을러지고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마다 잠시 쉬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사령부 인사과에서 행정업무를 하며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속한 인사과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사령부 전 장병의 생활이 개선되고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제대 이후에도 이런 성격의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진로를 탐색하던 중 5급 공채 시험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공직의 길이 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연이은 2차 불합격에 저는 진로를 바꾸어 오늘의 제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2. 총 수험기간

많은 분들이 합격까지의 수험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저 역시 궁금했었습니다. 주위에 보면 1년 만에 붙었느니, 2년 만에 붙었느니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수험기간이 대개 짧게는 3년, 보통 4년 이상이었습니다. 혹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3년 혹은 4년 차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 기간이 3,4년 정도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이제 합격의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2차를 각각 총 4번을 보았습니다. 즉, 2007년 1차 합격 이후 2010년 최종합격을 하기까지 매년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3번 불합격한 후 4번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1차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07년 첫 번째 시험

2006년 말에 제대하여 급하게 토익시험을 본 후 2007년 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제 기억으론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피셋고수 이런 건 아닙니다.ㅠㅠ 1차 시험을 보고 복학을 한 상태에서 합격소식을 들었습니다. 2차 시험을 봐야하는데, 그 당시 2차 과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습니다.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이라 정치학 과목만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제가 평생 받을 과락은 다 받고 2차 시험을 끝냈습니다. 제 기억에 경제학 점수가 9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점수를 받고 나서 교수님들께서 참 꼼꼼히 채점하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 2008년 두 번째 시험

2007년 처음 시험을 보긴 했지만 학과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5급 공채 시험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다가 2007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행정법 기본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그 때 처음 접하였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가장 재미있었

고, 그러다보니 학습능률도 높아져 가장 부담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과 경제학 기본강의를 한 번씩 듣고 나니 방학이 되었고, 1차 시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07년 처음 1차 시험을 본 경험에 비추어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생각에 2달 정도 시험시험에만 매달렸습니다.

2008년 1차 시험을 보고 대학동으로 이사를 하여 3순환을 바로 수강하였습니다.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무관히 3순환을 듣는 게 좋다는 선배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각 과목별로 3순환을 듣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행정법과 경제학도 기본강의만 한 번 들은 상태였고, 행정학은 NPM이 무엇인지 3순환 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책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아는 게 없어 답안 작성이 힘들어 답안 작성을 위한 스터디를 병행하였고, 내용보다는 형식을 맞추는 데 우선 초점을 두었습니다. 4월에 합격 발표가 나고, 나머지 두 달간 답안 연습만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8년에는 답안 작성 연습보다는 기본기를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차 시험장 경험이 많을수록 좋지만, 당시의 제 모습은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형국과 비슷했었습니다.

당연히 2008년 2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기본기를 다시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어 방학 때부터 각 과목별로 기본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건대 2008년 3순환을 듣지 말고 그냥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차 경험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2차를 3번 보나 4번 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본기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2009년 세 번째 시험

2007년 첫 시험은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고, 2008년 두 번째 시험 역시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게 된 저로서는 2009년 시험이 진짜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애초 시험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딱 3번 2차를 보고 합격하지 못하면 그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2008년 2학기, 2009년 1학기 1년 간 휴학을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2순환은 경제학만 한 번 수강하였고, 나머지는 저 혼자 공부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고 답안작성 연습은 스터디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저는 한 시기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한 과목을 먼저 1회독 한 다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을 한 달 간 공부한 후 행정법을 3주, 행정학을 2주, 정치학을 2주, 선택과목을 1주, 이렇게 한 번 다 본 다음 다시 경제학을 공부하되 이번에는 1회독하는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는 개인공부과목-스터디 답안작성 과목이라고 하면 경제학-경제학, 행정법-경제학, 행정학-행정법,

정치학-행정학, 선택과목-정치학 순으로 했습니다. 개인공부를 한 과목은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때 스터디에서 답안작성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개 수험기간 동안 대학동에 거주하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오전 8시에 독서실에 출근(?)하여, 10시까지 공부한 후 10시부터 12시까지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소위 서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번의 2차 경험이 주요했습니다. 초시 때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재시 때에는 막판에 정리를 하나도 하지 못해 후회막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 정도를 남기고 보기 위한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은 김진욱 경제학의 zip+기타 자료들을 추가하여 만들고, 행정법은 성봉근 기본강의 판서노트+필기+기타 자료, 행정학은 정경호 핵심행정학+필기+기타 자료, 정치학은 당시 서브가 없었습니다...정책학은 정경호 핵심정책학+추가자료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보니 어느덧 1월이 되었고, 2차 공부는 올 스톱한 상태에서 1차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1,2월 1차 공부만 하고 2월에 시험을 본 후 3순환 강의와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생활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였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오전에 학원 3순환을 수강하였다는 점입니다. 학원 수강시 오전 영상반과 오후 실강반 중에서 고민을 하였는데, 저는 오전에 학원 강의를 듣는 게 오후, 저녁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험 기간 내내 3순환은 오전 영상반만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 것 같은데, 2010년과 비교해 보면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도 딴 생각을 하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네요;;; 오전에 학원수업을 듣고 오후·저녁에 공부하고 밤엔 스터디를 했습니다. 3,4월은 50점 답안을 쓰고, 5월 중순부터는 100점 답안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부모님과 약속한 세 번 째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만큼 다 쓰고 나왔고, 홀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못했지만, 운이 좋다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보고난 후 공부는 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단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보니 7,8월이 지났고, 2009년 2학기에 7학기로 복학을 하였습니다. 복학을 하여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중에 1차 시험 때와는 달리 합격문자가 오지 않았고, 저는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1점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약속한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다 써 버렸고, 졸업을 두 학기 남겨둔 상황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해야할 것인가, 계속 공부하다가는 고시 낭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합격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공직자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때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과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도전하시라고! 스스로를 믿고, 나는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제 주변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취직한 친구들 중에 공직자의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사실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조금 더 성실하게 공부하는지, 누가 조금 더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지가 합격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5. 2010년 네 번째 시험

아무튼 고민 끝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보기로 결심하였고, 그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경제학이어서 이번에는 경제학 공부에 올인하였습니다. 가을에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오로지 경제학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김진욱 미·거시 500제와 황종휴 500제를 구해서 스터디를 하며 풀었고, 그동안의 기출문제 및 2007년 이후의 학원 3,4순환 경제학 문제들을 모두 구하여 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당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오기를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만 파다보니 어느덧 1월이 되었고, 여느 때처럼 1차 시험 준비에 돌입하였고, 1차 시험을 친후 학원 3순환 강의는 정치학, 정보체계론만 듣고 나머지는 혼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답안은 5월부터 100점 답안을 쓰기 시작하였고, 어떻게든 더 잘 써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0년 3,4,5월은 제 수험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2010년에는 서두에서 보여드린 대로 합격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더 좋은 답안을 써야한다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절박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공부를 할 여력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이 길은 더 이상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합격의 기쁨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1. PSAT

저는 언어·자료·상황 모두 학원 강의를 듣진 않았습니다. 대신 소위 말하는 피셋 고수를 초빙한 스터디를 조직하여 기출문제 분석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언어의 경우 문항별로 어떠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자료의 경우는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 스터디원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상황은 그냥 제 운에 맡겼습니다^^;; 대개 2월에 시험이 있으면 1월부터는 2차 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하루에 한 세트씩 1차 시험 문제만 풀었습니다. 심지어 시험 보기 2주일 전에는 하루에 5개씩 풀기도 했습니다. 저는 1차 시험도 반복과 훈련이라 생각하여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0년 4년 동안 1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였지만, 2007년에는 컷트라인으로 합격하였고, 갈수록 성적이 높아져 2010년에는 합격선보다 평균 6점 높게 합격하였습니다. 공직적성평가 시험이 타고난 머리도 중요하지만, 시험의 유형을 이해하고 분석하면 반복과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은 저의 수험생활 기간 동안 애증이 묻어나는 과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불합격할 때에는 불합격을 이끌었고, 2010년 합격할 때에는 합격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전반을 걸쳐 보아도 경제학 공부에 전체 공부량의 70%정도를 투자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듯이 경제학은 주어진 가정에서 답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과목이므로 수험생 간 점수의 편차가 큰 과목입니다. 따라서 합불뿐만 아니라 합격이후의 등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경제학 공부를 우선지 했습니다.

경제학 공부 초반에는 기본서를 보았지만, 2009년부터는 교과서를 보기보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올 경우 교과서를 참고했습니다. 저는 되도록 많은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응용문제들 역시 결국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와 수식을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제학 역시 수학처럼 문제를 풀어 답을 구하는 학문이고, 많은 문제를 풀다보니 어느덧 경제학에 자신감을 가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면서 얻은 것은 문제해결능력도 있지만, 경제학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경제학은 그래프와 수식이라는 이전 합격생 형의 말을 신조로 삼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안 스터디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답안에 그래프와 수식을 잘 표현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그래프의 경우 따로 정리를 하여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3. 행정법

기본강의 들을 때부터 2010년 2차 시험장에서까지 정말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행정법 사례문제를 풀 때 먼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내기 위해 내가 알아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검토하는 방식, 즉 역진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또 불필요한 내용을 쓴다고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서는 사실 행정법 특강을 2회독하였고, 주로 학원 강사분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물과 사례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의 행정법 같은 경우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출제 되었을 때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판례의 문구를 따로 들고 다니며 외우기도 했던 게 풍부한 답안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행정학/ 정치학

일반행정이 공부해야하는 과목 중 대표적 글쓰기 과목인 행정학과 정치학은 공부방법론이나 내용 측면에서 정답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정치학 전공이라 비전공자에 비해 공부 투입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고시답안은 다르기 때문에 답안 쓰는 연습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학과 정치학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두문자 등을 이용해 최대한 많이 외우려 했습니다. 특히 행정학과 정치학의 각 주제별로 등장하는 학자의 이름과 이론적 틀, 내용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하여 학원 시험이나 스터디 시간에 답안작성을 할 때 써 먹으려 애를 썼습니다. 2차 시험 답안 역시 소논문이라고 생각할 때 권위있는 학자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감점요소가 적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차 시험 점수를 떠올려 볼 때 정치학과 행정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 편인데, 이러한 답안작성법이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 정보체계론

저는 2007,2008,2009년에는 선택과목으로 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과락, 2008년 21점, 2009년 22점을 받고, 2010년에 정보체계론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과목을 바꾸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꾸길 잘 한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론은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과목자체가 IT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행정학 중 전자정부 부분에서 정보체계론 내용을 쓰기에도 좋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온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Ⅳ. 마치며

글을 쓰다 보니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글이 흘러간 것 같아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박감, 반복과 훈련,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쉽지 않은 문제를 읽고 이해한 후 해답을 10페이지에 쏟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평소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합격의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면 틀림없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5급 공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